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재료연구소 ‘재료야 놀자’

물건의 가치 좌우하는 ‘재료’에 대해 알아보자



‘재료야 놀자’ 프로그램의 금속 표면처리 체험을 하는 학생들. 재료연구소 제공

생활용품, 전자기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다. 어떤 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성능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는 이 같은 ‘재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연구기관이다.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재료, 4차 산업과 첨단기술에 필요한 재료, 친환경적인 재료 등을 연구 개발하고 시험하며 재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재료연구소는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재료야 놀자’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재료야 놀자’ 프로그램은 재료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설비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학생들은 재료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재료와 놀자’ 프로그램은 △금속 표면처리 체험 △형상기억합금 체험 △전도성 잉크 체험 △

복합재료 드론과 가상현실(VR) 체험 등 총 네 가지 체험으로 구성돼 있는데, 학생들은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체험할 수 있다. 금속 표면처리 체험에서 학생들은 금속의 기본 성질을 배우고 알루미늄 판을 부식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새겨 넣는다. 형상기억합금 체험에서는 일정한 온도가 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지닌 합금을 직접 관찰하고 이 합금과 관련한 응용분야를 모색하는 활동을 한다.

이외에도 전선 없이 전기가 통하게 하는 '전도성 잉크'를 활용해 회로를 만들어서 전구를 켜보는 전도성 잉크 체험을 비롯해 복합재료(서로 다른 재료를 혼합해 새로운 특성을 지니게 된 재료)로 만들어진 드론을 날려보고 VR기기를 통해 비행체험 및 재료연구소 실험실을 살펴보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재료연구소의 '재료야 놀자' 프로그램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되며 참여 시간은 협의할 수 있다. 한 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재료연구소 홈페이지(www.kims.re.kr)를 참고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꿈길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문의 055-280-3792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재료공학기술자: 재료공학기술자는 금속재료, 비철금속재료, 세라믹재료, 반도체재료, 복합재료 등을 처리 및 제조하는 산업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거나 이러한 재료의 특성을 연구·개발하는 일을 한다. 재료공학기술자는 다양한 재료가 적합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마사회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말 동물병원, 말 수영장 돌아보며 관련 직업 살펴봐요”



‘말산업 진로직업체험’에 참여해 치료받는 말을 살펴보는 학생들. 한국마사회 제공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인 경마와 승마는 단순히 스포츠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만 아니라 큰 경제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우수한 말을 육성해 판매하는 시장, 말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 ‘장제(말의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말발굽에 쇠붙이를 대는 것)’ 분야의 시장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말과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말과 관련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싶다면 한국마사회 승마진흥원의 ‘2017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자. 말산업 진로직업체험은 학생들에게 말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고 말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시설을 보여주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서울’ 일대에서 이루어진다.

12월까지 진행되는 말산업 진로직업체험은 매주 수~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반,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회당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총 2시간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특강 △말산업 현장 및 시설견학 △말과 관련한 체험학습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말의 생태, 말의 역사, 말 문화 등에 대해 듣고 배운다. 이후 △말 동물병원 △장제소 △말 수영장 △말 사료전시장 △승마장 △마구간 등의 시설을 차례로 돌아보면서 말 수의사, 장제사, 말 조련사, 승마지도사 등 말과 관련된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들 직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마사회 승마진흥원의 ‘말산업 진로직업체험’은 한 회당 2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렛츠런파크 서울 홈페이지(park.kra.co.kr)와 꿈길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509-2461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장제사: 말이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말의 발굽을 점검하고 편자(말의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발굽에 붙이는 'U'자 모양의 쇠붙이)를 제작하는 전문가. 말의 소유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장제사는 말의 건강상태나 발굽에 난 상처 등을 점검하고 자라난 발굽을 깎아준 뒤 그에 맞는 새 편자를 만들어 달아준다. 장제사는 말 수의사와 협의해 말의 발굽에 생긴 질병치료용 특수편자를 제작하기도 한다.